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 증원

군산시 첫 출자기관... 비상근이사 3명 공모 재생에너지 사업 영역 확대하라... 22일까지

군산시는 시 최초의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비상근이사) 3명을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시가 전액 출자하는 기관으로, 시의 역점 사업인 새남마을 부지 내의 육상·수상 태양광사업, 공공 유휴부지 발전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총괄기획과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의 주

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임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에 앞서 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및 경영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개모집 대상 임원은 비상근이사 3명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임원 결

격사유에 해당되는 않는 자로, 행정·금융·해상풍력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또는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과 실천능력을 갖춘 자 등이다.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군산시장에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 임명이 완료되면 총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화에서는 주요 사업계획, 정관 등 회사 운영을 위한 절차들을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을 증원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해, 명실상부한 군산시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지원서류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이메일, 등기우편 등)로 진행할 예정이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 공개모집의 자세한 공고내용 및 지원서류 등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or.kr) 고시공고의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산=한영봉 기자

동파수도계량기 무료 교체

군산시는 올해부터 겨울철 한파로 파손된 수도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

그동안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동파된 수도계량기에 대해 수용가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교체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부담을 시민에게 넘기기보다는 시에서 수용함으로써 신뢰행정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6년 이상 노후된 수도계량기뿐만 아니라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까지 모두를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점검 시 계량기 보온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고 동절기 동안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시 시에서 지정된 12개 상수도 대행업체를 통해 신속히 교체할 예정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역 소식통

차기 한국농촌사회학회장 원광대 김흥주 교수 선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사회과대학 학부복지보건학부 김흥주 교수가 한국농촌사회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사단법인 한국농촌사회학회는 사회학 발전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농촌사회학(nural sociology)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근대와 과정에서 해체되고 있는 한국 농촌사회와 공동체의 특성을 사회학적 시각과 이론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 역사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지역연구전문 학회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명예시민 선정

익산시가 지역 발전을 이끈 강태호 전 전북에너지서비스 사장과 윤태진 식품산업플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시는 8일 시장실에서 강태호 전 전북EBS 사장과 윤태진 한국식품산업플러스터진흥원 이사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강태호 명예시민은 지난해 1월부터 SK E&S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천연가스 공급, ▲도시가스 보급률 78%까지 향상 ▲산업단지 Roof-Top 태양광발전, ▲Bio-SRF 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윤태진 이사장은 2018년 1월 국가식품플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식품산업 혁신 성장의 메카라는 새로운 비전 전략을 마련하고 ▲국비 50%에서 90% 상향으로 예산구조 혁신, ▲신규사업 확보 (국비 882억) ▲조직 내부혁신 등을 통해 국가식품플러스터의 양적 성장과 대외 위상을 크게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의회 긴급대책반(위원장 박철원)은 지난 3일부터 영등동, 대학로 등 번화가 거리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긴급대책반 '코로나 극복' 거리두기 캠페인

영등동·대학로 등 번화가 거리서 방역수칙 준수 홍보

익산시의회 긴급대책반(위원장 박철원)은 지난 3일부터 영등동 대학로 등 번화가 거리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익산시에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바로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 등 관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긴급대책반은 '마스크가 보아줍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족 지킴이'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감염병 확산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활 방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의회는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전체 시민의

지역구 방역상황 점검 등 코로나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자체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유재구 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생활방역이 필요하다"며 "익산시의회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에 철저준비의 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지켜나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익산 평화육교 내년 6월 개통

공정률 75%... 국가철도공단·익산시·시공사 유기적 공조

익산 평화육교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마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8월 시에 따르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분담금 52억46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지난 2017년 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이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기존 평화육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교량 재가설 366m, 기형적으로 형성된 호남고속철도 864m를 선형개량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우회도로 확장 등의 요인으로 약 1년간 사업 기간이 연장된 데 이어

철도 운행 등으로 작업을 주로 새벽에 실시해야 하는 현장 여건 때문에 준공 시기가 재차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익산시,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준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조 건설국장은 "익산의 관문인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는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참고 견디어 준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큰 몫을 담당했다"며 "시민, 기관, 시공사가 쏟아 부은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시 한번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받아

군산시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12월 말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수급 가구 내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20대 자녀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급,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조건이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사전신청기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063-454-4242)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윤병철 주택행정과장은 "코로나 19 등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